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5월 30일(금)

(윤력 5월 4일)

Пятница

30 мая 2025 г.

№ 21 (1213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일은 러시아에서 어린이 보호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리마렌코 주지사, 쓰레기 무단투기장 처리 기한 단축 요구

주 정부회의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쓰레기 무단투기장 철거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현재 쓰레기 처리규정은 30일 이내 처리하기로 돼 있다. 주지사는 규정을 재검토해 이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5월 초부터 사할린 지역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장들 탐색에 나섰다.

드론은 인적이 드문 구역과 개인주택 건축지, 비영리 원예농업 구역 및 하천 구역에 쓰레기 투기장들을 재빠르게 발견해내고 있는 중에 사할린 전 지역 500m²에 달하는 구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생태 및 생활안전 개발부의 안드레이 사마토프 장관은 "현재 '오로라-바스(무인기)'항공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해 쿠릴열도에 쓰레기 무단투기장들을 수색할 예정이고,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아ಿನ와, 코르사코브 지역 등 인구밀도가 더 높은 구역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할린의 8개 지역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현재까지 총 592곳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을 발견했는데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흠스크 등의 58개 쓰레기 투기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장 처리 규정이 30일로 정해져있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기한을 단축시키도록 요청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쓰레기 무단투기장을 6월 7일까지 모두 철거하고, 정화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쓰레기 철거가 요구되는 대형 쓰레기들이 있다면 철거 기간을 2주 더 연장할 예정이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사할린 지역의 무단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수백 개의 대형 무단 쓰레기를 철거했다. 이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할린, 네프체고르스크의 희생자 추모제 열려

5월 28일(수) 강력한 대지진으로 네프체고르스크 마을이 파괴된 지 3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들이 오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철도역 부근 소공원에 있는 희생자 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추모제에 네프체고르스크에 살았던 주민들과 희생자 유가족, 사회단체, 종교계, 주·시 의회 의원들, 사할린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헌화, 추모 미사가 거행됐다.

1995년 5월 28일 참혹한 대지진이 오후 구역 네프체고르스크 마을에 발생했다. 지진 강도는 9 - 10도로 그 참사로 2,096명이 사망했고, 아파트와 학교, 클럽, 동력 및 전력 발전소, 도로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후 구역에 펼쳐진 네프체고르스크 추모행사에 사할린주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참여했다.

(사진: 주정부 제공)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석탄산업 청년 종사자들의 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5월 28일 '청년과 아동'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석탄산업의 청년 종사자들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러시아 석탄산업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의 직업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리며, 그 주요 목적은 참석자들에게 사할린주에서 사회진출의 기회를 알리는 데 있다.

사할린주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포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포럼엔 모스크바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연해주, 케메로브주, 로스토브주, 하카시아 공화국, 바쉬코르토스탄, 코미공화국, 크림공화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 사할린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16세 -35세의 청년 250여 명이 참가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석탄기업을 방문하고, 고용주들과 만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사할린 국립대의 제반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이며, 석탄산업 청년 종사자 포럼은 5월 31일에 종료된다.

사할린의 기업가들 중국행 사업 사절단에 참가

이 행사에 러시아의 협력자들과 사업관계 구축 및 협력 확대에 관심을 가진 중국의 30개 이상의 기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행사를 사할린 지역 수출사업지원센터가 주최한 가운데 회동의 일환으로 B2B(사업 대 사업)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어 사할린 지역의 6개 생산업체가 잠재적 해외 고객들에 자사제품을 선보였다. 그중 '사코', '안타르노예', '세웨르나야 즈웨즈다', 등 기업은 제과와 젤리, 음료 '크바스', 생선제품에서 견본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지원센터의 부소장인 왈렌티나 비츠코와는 "중국과 장기적인 협력과 경험 공유 구축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중에 체결된 협약은 양국 간 제품의 품질과 특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며, 교역 확대와 국제적 무대에서 사할린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조성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아에로플로트' 여름철 성수기, 유즈노사할린스크발 항공편 증편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여름철 휴가 및 방학기간인 성수기에 극동지역으로 가는 항공편을 증편할 계획이다. 추가 항공편은 국제선에서 전환되어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항공편으로 극동의 인기 지역인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등 3개 지역에서 운항된다.

항공권 금액은 고정가격으로 판매된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간담회: 부모사망 2세 영주귀국을 위한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청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위원장:위성락 국회의원)'와 공동개최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여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 5월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위성락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인 유은재 한러 빅토르 최 기념사업회 회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내 걸고 성대한 출범식을 한 외교공약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위성락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러·우 전쟁 이후 경색되어 온 한러 관계를 다시 우호적으로 회복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러시아 사할린동포들의 시급한 숙원인 사할린한인 1세 부모가 사망한 2세의 영주귀국을 위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특별법) 일부 개정 입법을 위원회(위성락 위원장)에 청원하였고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이하 사할린동포회, 회장 권경석)와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위성락 의원은 회의장에 입실하여 자리에 앉기 전에 사할린동포회 회장단의 자리를 차례로 돌며 일일이 악수를 청해 손을 맞잡고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먼저

표했다.

정책간담회는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13명과 위성락 국회의원을 비롯한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1일 국회 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회의는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수미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국민의례 후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고 위성락 위원장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인사말에 이어 권경석 회장의 인사말 차례에서는 권경석 회장이 아주 짧은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사할린에서 올리는 호소문' 낭독으로 인사말을 대신했고,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성락 위원장과 김대식 부위원장(전 카자흐스탄 대사), 이혁 부위원장(전 외교부 일 본 및 아세아 담당 외교관), 김수권 부위원장(전 핀란드 대사)도 호소문을 각각 1부씩 받아서 정독하며 다 함께 호소문을 경청하였다.

이 호소문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부모사망 2세로서 느끼는 통한(痛恨)을 유은재 회장에게 문장으로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는 이체인 선생이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요청의 핵심 전달 및 호소 목적으로 사할린에서 올리는 호소문' 전문을 써서 보냈다(호소문은 본지 3면 게재. 편집부).

(이체인 선생이 자필한 '사할린에서 올리는 호소문' 서명본은 고급

상장집에 담아 위성락 의원실에 제출)

호소문으로 요지를 전달한 후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권경석 사할린동포회 회장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경과와 내용을 연대기로 정리하여 발표한 후 위성락 의원에게 사할린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꼭 발의해서 부모사망 2세의 영주귀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훈춘 사할린동포회의 안산시 지회장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처음으로 구성된 주택단지인 안산시 '고향마을'을 사례로 초기 귀국자들의 입주 과정과 고령으로 인한 대다수의 사망 등을 수치로 제시하며 이미 고령이 된 부모사망 2세들의 영주귀국 승인의 시급성을 발표했다.

귀국 전에 사할린에서 이산가족 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이수진 남양주시 지회장은 현재의 사할린 특별법으로도 귀국동포와 잔류동포 간의 이산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역시 제일 시급한 것은 평균연령이 이미 80세가 다 되어가는 부모사망 2세들의 귀국문제 해결임을 강조했다.

김포시 최정순 지회장은 사할린동포 1세인 남편의 배우자로 영주귀국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귀국대상에 선정되기를 기다리던 중 돌아가셔서 부모사망 2세가 된 당사자로



서 귀국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의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과 애틋한 마음을 절절히 토로하며 이번 간담회가 꼭 부모사망 2세들의 귀국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길 요청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채신자 지회장은 사할린동포 2세들의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취득 과정의 간소화와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에 대해 요청했다. 부모사망 2세의 귀국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회 회장단은 이구동성으로 부모사망 2세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물론 2세들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꼭 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단은 선거운동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1시간 30분에 걸쳐 사할린동포회 회장단의 부모사망 2세 귀국법안 발의 요청과 기타 애로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경청한 후 사할린동포회 회장단이 발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부모사망 2세 귀국을 위한 사할린동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에 청원하고 이번 간담회를 성사시킨 유은재 회장은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므로 부모사망 2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할린동포회 회장단에 주문했다.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에 희망 회로를 돌려도 제정까지는 녹록치 않다면서 모두 땀땀 땀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글과 사진 유은재 회장 제공)

이모저모

전국 <러시아 연방. 마라톤대회>에 사할린 주민 1천 명 이상 참가

러시아 연방 전국 마라톤대회에 사할린주도 합류해 개최한 가운데 전국 85개 도시들에서 마라토너들 15만 명이 넘게 이 행사에 참가했다. 경기 참가자들은 각기 11개 시간대의 다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출발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올해 제 6회 하프마라톤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이 <트리umpf(승리)>바이애슬론스키 단지 트랙에서 500m, 1km, 5km, 10km, 21.1km 코스들에 따라 자신들의 실력을 한껏 발휘했다.

이에 사할린 주내 다양한 지역들에서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가했다.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500m, 1km종목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고, 이후 마라톤 애호가들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종목인 5km 코스에 도전했다. 저녁 6시에는 가장 숙련되고, 강인한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해 10km와 21.1km 코스를 이겨내며 훌륭하게 완주에 성공했다. 하프마라톤대회의 최고 우승자는 일리야스 누르갈리에브와 마리나 솔로도바가 차지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에서 '5웨스트' 기획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고, '릴 타임(Real Time)' 팀은 음악으로 지원했다. 출발지에서 가족들은 오락행사를 즐기며,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먹고, 솜사탕을 맛보며, 다른 활동들을 즐겼다.

Бежали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более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вышли на старт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частью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Собы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150 тысяч бегунов из 85 городов страны. Участники старто-

вал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ицу в 11 часовых пояс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шел шестой забег.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ерили свои силы на дистанциях 500, 1, 5, 10 и 21,1 км на трассе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Всего в спортивном праздни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0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област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первыми вышли на старт. Они пробежали 500 метров и километр. Затем любители бега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ерешли к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дистанции — пяти километрам.

В 18:00 на старт вышли самые опытные и выносливые участники. И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и 10 и 21,1 км, и они справились блестяще. Ильяс Нургалиев и Марина Солодова стали лучшими среди полумарафонцев.

На трассе участников поддерживали волонтеры из проекта «5 верст» и команда Real Time с живой музыкой. В стартовом городке семьи развлекались на площадках, угощались в мобильной закусочной, покупали сладкую вату и наслаждались другими активностями.

"나는 비츠코와 다리야입니다. 사할린에서 왔고요!" 타간카 극장 공개 캐스팅에서 사할린 여성 우승

사할린 여주민인 다리야 비츠코와가 타간카 극장에서 열린 '배우의 모자' 공개 캐스팅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다리야는 캐스팅-디렉터, 프로듀서, 감독들과 연출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전문적인 관객들 앞에서 공연에 나섰다고 '극장 공연'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졌다. '배우의 모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다리야 비츠코와는 자신의 공연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내게 공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타간카 극장 무대에서 서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바로 여기서 위대한 배우들이 공연했으며, 우리 모두

가 이 나무바닥 무대를 거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기쁨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몸이 떨릴 정도로 미하일코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생동감 있는 진짜 극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러한 것들로 눈물이 났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나는 많은 것을 겪으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르바이트 거리에서 돈을 벌며, 만족히 먹지도 못했고, 모스크바행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삶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세 개의 직업을 전전했다(지금도 하고 있다). 누구나 통상적인 기준의 틀에 자신을 꺾어 맞추려고 수천 번이나 애쓸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나에게에는 오직 추억만이 남아있다. 그러니 온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추억들이 되길."이라고 표명했다.

다리야는 24세로 2023년 모스크바 현대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영화-극장.루'정보에 따르면 다리야는 <행복으로의 전환>(+16), < 5분간의 침묵. 바다와 산>(+12), <자신의 이상한 딸>(+16), <멈춰!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꼬치꼬치 캐물어거야>(+16) 등 영화작품에서 성공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배우의 모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되어 배우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캐스팅 방식의 독특한 행사다. 이 경연은 노련한 배우들에게나 연극학교 졸업생과 대학생들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참가자들이 유명 감독과 프로듀서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의 사회적 진출에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Я — Бычкова Дарья, я с Сахалина!»: землячка победила в открытом кастинге в Театре на Таганке

Землячка Дарья Бычков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открытого кастинга «Актёрская шапка» в Театре на Таганке. Девушка выступила перед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убликой и членами жюри, состоящими из кастинг-директоров, агентов, режиссёров и продюсе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ПОСТУПЛЕНИЕ В ТЕАТРАЛЬНЫЙ».

(8면에 계속)

사할린에서 올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위성락 대한민국 국회의원님께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맞아 사할린동포 정책 개선을 추진해 주시는 위성락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성락 의원님!

의원님께서 주 러시아 한국대사를 역임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할린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힘이 없어 이역만리 이곳 섬까지 강제로 끌려온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80년입니다.

한국은 해방된 지 75년 만에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을 위한 사할린동포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그간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고 있었던 사할린동포 1세만 영주귀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와 2세 간에 비극적인 이산가족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직계비속 2세 중 한 명만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2세 중 한 명만 귀국하면서 2세대 간에도 다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2세와 3세 간에도 이산가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1세 가족의 자녀 즉, 2세 모두가 영주귀국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2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귀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만도 가슴에

한(恨)으로 남았는데 저희 2세대들은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특별법으로 대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할린동포를 귀국시키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5년입니다.

여기 사할린에 남아있는 부모사망 2세대들은 이 5년이 또다시 75년, 80년, 그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비통함 속에서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할린 땅에서 돌아가신 게 한국 법에서는 죄라는 말씀인가요?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

저희 부모님들은 긴 세월을 일본 땅이었다가 소련 땅이 된 이 섬에 갇혀서 강제노역과 무국적자로 살면서

끝내 체불노임도 받지 못한 채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된 사할린에서 귀국을 기다리다가 애타는 설움과 통한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2세라도 살아서 모국땅 밟아볼 수 있게 사할린동포 특별법 제2조 2호를 공평하게 개정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과 요청을 올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사망 2세의 귀국문제를 확고한 법으로 공평하게 해결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2025.05.17. 사할린주 사할린동포

부모사망 2세 일동 올림

책임작성 : 사할린 동포 2세 이채인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난청, 소리의 탐 / 이구락

불끄고 누우니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 들려온다

오래 듣고 있다 문득,

옆방에는 지금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났다

다시 들으니 풀벌레 소리다

찌르르르 찌르르르, 뽀뽀뽀뽀,

쩨리리리 차리리리, 차찌찌찌

풀벌레는 내 가슴에다 소리 탐 쏘고 있었다

늦은 밤 원두 커피에 시바스 리갈

을 살짝 넣어 마시는 분. 고교 국어교사

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셨

는데, 그 누구보다 시인의 마음을 지닌

분이시지요. 이구락 시인. 선한 눈매만

큼 선한 이야기들을 제게는 아주 편하

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뭐랄까. 신사

라기보다 선비 같은 분 계시잖아요. 시

대를 초월한 어떤 바위처럼 단단한 철

학도 지니셨으면서 무엇보다 여유로운 농담과 적당히 술도 즐기

셔서, 석 달 남짓 함께 집필실 생활을 한 뒤에도 명절 때만이라도

전화로나마 인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일평생 부랴부랴 은퇴를 하고 싶으셨다는 데, 모든 직무에서

벗어난 뒤에는 오직 시에만 전념하고 싶으셨는지요. 이제 못다

한 언어에 대한,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 시선에 대한 사색을 깊

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즈막히 일러주셨던 기억입니다. 저는

전업을 선언한 뒤, 마음 속으로는 번뇌가 가득할 때였기에, 그 시

절 레지던스 또는 집필실 등지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늦은 술잔

을 기울이거나 한가로이 차담을 나누며, 좀 더 제 삶에 대해서 그

리고 제가 가야할 길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기가 힘들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가야할 방

향을 짚어주셨습니다. 고마운 정도가 아니지요. 선배 작가, 선생

님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절 시공간의 좌표와 선생

님 표현대로 '연'이 있었던 게지요.

제가 요즘 아주 바쁘게 살아요. 글 쓰는 일이 전부인데, 잘 써

지는 건지, 막 쓰는 건진 모르겠으나, 날 밤 새우기 바쁠 만큼 원

고지 앞에 꼼짝없이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일이 좀 들어왔는데,

일 욕심을 제가 아직 버릴 수 없나 봐요. 얼마 전 선생님 생신이서

서 연락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월 땐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한두 달 지내실 때라, 며칠 뒤 전화요금 안 내는 어

플로 전화를 주시곤 하셨거든요. 제가 카톡을 워낙 싫어하는 사

람이었던지라 제게 연락주기가 참 답답하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돌이켜보면 제가 여기저기 민폐를 많이 끼친 셈이네요, 아무튼.

선생님께서 은퇴 후 일 년에 한 두 달 정도는 외국에서 지

낼 계획이셨거든요. 사진 촬영도 좋아하시고, 그 누구보다 들쭉

과 이름 모를 꽃에 대해 관심이 높으셨어요. 불교 그리고 우파.

저야 종교며 정치에 대해선 워낙 무관심한 사람인지라 선생님께

서 제게 이런 점을 어필하실 때 조차 저는 인상깊었던 기억입니

다. 워낙 선비 같으시니, 언제든 어떤 철학을 제게 강요하지 않으

셨거든요. 사색이 깊은 대화의 시간이 제겐 커다란 행운의 시간

으로 이어지리라, 그때도 저는 그렇게나마 느꼈으니,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드님이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직감했지요.

이구락 시인의 부고소식. 인생 짧아요. 짧습니다. 저는 뭐든 미루

고 보는 게으름뱅이인데, 늦추던 그 많은 예정들을 최대한 제 눈

앞에 그려놓을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은퇴 후의 소소한 계

획을 제게 가끔 들려주셨는데……. 허무함이란 황망함이란 단어

를 제가 이리 쉽게 쓸지 몰랐습니다.

언어를 너무 압축하는 바람에 그 글들이 때로는 꼴도 보기

싫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셨던 분. 서정시의 미학에 종교

적으로 이를 승화시키고 싶은 꿈이 가득하셨던 분. 토마토 라면

에 애착이 강하셨지요.

오래 전 '글을 낳는 집'에서의 추억이 어느새, 비 내리는 여

의도의 늦은 새벽, 그때의 풀내, 흙내까지 너무도 소중히 다가옵

니다. 시대의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어른의 책임으로 들쭉과 어린 꽃잎, 새싹들을 바라볼 수 있

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긴 힘이 들

니다. 행동은 생각이라는 절차를 너무 간략하게 거쳐서도 안 되

기도 하고요. 둘의 발란스에 있어, 그 누구보다 단정했던 이구락

시인님께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

을 빕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진심어린 경의 그리고 따뜻한 마

음을 담아.

(서울에서 허진원)

광주 국제학술대회에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 발표

지난 5월 23일(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와 제주대 4·3 융합전공과정은 냉전을 주제로 하는 <장기 냉전의 지식 경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 미국 하와이, 러시아 모스크바와 사할린, 일본, 한국 등지에서 온 20세기 국제관계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냉전의 장기적 영향력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에 대한 일본 입장', '전후 북한의 기성 건축과 도시 기억', '소비에트와 러시아 연방의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언어교육: 투르크계 민족을 중심으로' 등의 발제를 했고 학술대회 전체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대행인 진 율리아 학자는 학술대회에서 '원치 않는 귀환: 사할린한인 송환에 대한 일본·한국·미국의 입장'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발표에서 사할린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외교적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사할린한인의 비극은 세 주요 국가(일본·한국·미국)

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라며 "냉전 논리가 인도적 고려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점령군 신분으로 일본·한국을 통제하며 송환문제 자체를 논의할길 거부했고, 일본은 1945년까지 한인 강제동원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송환 지원을 전면 회피했으며, 한국 정부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없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에도 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진 율리아 학자는 특히 소련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적대감이 외교적 수단을 통한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지정학적 대립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대화 시도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강대국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전체 민족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고, 국제 관계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진 율리아의 연구는 국제적 대립이라는 맥락에서 외교적 결정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국가 책임의 문제를 다시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사 기자)

'에트노스'학교와 '제주두루나눔' 교류 현장 만들어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의 민족들: 사할린 한인"축제가 진행된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수로 보아 한인들은 사할린주에서 두 번째 민족이다.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은 사할린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며, 사할린 한인들은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난 28일(수)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제주도에서 '제주두루나눔'예술단체 단원 6명이 사할린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틀(5월 28일, 29일)에 걸쳐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에 탈춤, 민요, 풍물, 태평소 마스터클래스를 펼쳤다.

방문단 단장인 심규호 (사)제주한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작년에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 20명이 (사)제주한문화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두루나눔이 주관한 '2024 해외동포청소년 문화예술교류캠프 - 따로 또 같이'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생각으로 '에트노스'학교 마스터클래스 및 공연 요청에 응하였다고 했다.

한편 사할린, 특히 마카로브에서 개최하는 '우리는 함께'란 축제에 수년간 참여한 제주두루나눔은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과 많이 친해졌다.

심규호 이사장은 "사할린에 처음 온지 10년정도 되었으며"이번에 "네 가지 마스터클래스를 이틀 동안 진행한 후 그 학생들이 우리랑 같이 공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무 보고 싶었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사할린의 우리 한인들도 보고싶고 또 마카로브도 가보고싶고 그런 오래된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라고 하였다.

한편 28일(수)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측에서 준비한 환영만찬에는 제주출신 마카로브 가족들도 참가해 제주두루나눔 아티스트들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반가워했다.

'러시아의 민족들: 사할린 한인'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31일(토) 정오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까운 공원 카트드롬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와 제주두루나눔 합동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관객들을 위해 전통 게임, 요리 경연대회, 한국 음식 및 상품 판매장이 마련된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прошла лекция Дин Юлии на тему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от Мидзухо до Находки»



21 мая (среда) в 15:00 в Институте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ра и истории Азии состоялась ле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Юлии Дин.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значите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 80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80 лет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35 лет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СССР, 60 лет южн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Лек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с целью осветить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неизвестной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Институт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ра и истории Азии, ставши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данной лекции, занимается исправлением искажений истории в учебниках внутр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за рубежом, стремится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общего азиатс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сознания об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й агрессии 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ротив нее в XX веке. Институт уже представлял доклад о среднесрочном и долгосрочном плане мемор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лекц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овместно с организацией KIN (Korean InternationalNetwork) и Институ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й мира и истории Аз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ехавшие на ПМЖ в Ансан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Те, кто не мог посетить лекцию личн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режиме онлайн-конференции. Кроме того, в лек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доктор Ли Джун Ён (Университет Ханян), получивший докторскую степень за исследование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1920-х годах, 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е Жанна Тен, что показал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данной теме.

Юлия Дин в начале лекции отметила усил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созданию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передач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сообщила об открыт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лектор рассказала о недавних научных публикациях по данной теме.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лекции многосторонне раскрыло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ключая случаи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жандармами и гражданскими лица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репатриацию японцев и причины, по которы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меры СССР после Сан-Францисского договора и условия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как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стремление к возвращ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движение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в Японии; трагедию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в Находке, произошедшую в ходе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ло то, что помимо Мидзухо и Камисиска, случаи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 жандармами и полицией в Усиро, Тикоро и других местах были подтверждены

рассекрече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графии допроса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жандармов, которые сжигали корейцев, отказавшихся от эвакуации, и фотографии мест массовых убийств, сделанные советскими военными корреспондентами. Теперь эти документы доступны для изучения в фонд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Также были даны разносторонние объяснения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корейцы ост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ых причин упоминались отказ Японии от репатриации, безразлич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сутств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ов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Южной Кореи и СССР, а также тот факт, что корейцы, оста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ухода японцев, были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адаптации советских людей, массово переселя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 после войны.

Кроме того, методы «сахалинской жизни», освоё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огаты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и дикорастущих растений Сахалина, были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ы советским людям, приехавши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ля нового поселения.

В лекции историк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СССР, освободивши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читал возможным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около 23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оскольку их численность была невелика, но из-за различных условий, описанных выше, корейцы ост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после Сан-Францисского договора корейцы, потерявшие япон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Корейцы, оста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характерному трудолюбию работали днем, а вечером и в выходные занимались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продавая различные овощи и цветы на рынке, что обеспечило им эконом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Кроме того, они с энтузиазмом занимались образованием дет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многи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успешно обосноваться в СССР.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жили различные страд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репатриацией: в начале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часть была отправле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конце 1950-х годов приезжали пропагандисты из КНДР,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получ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и обучени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л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с улыбкой вспоминали прошлое при рассказах о продаже овощей на рынке. Лекция прошла в спокойной и серьезной атмосфере.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прозвучало, что в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адаптации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хавшего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также следует включить уроки по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нститут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дею и решил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развитием подобных инициатив в будущем.

(Основной материал стал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статьи Чхве Сан Гу,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KIN,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23 мая 2025 г.)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Кванджу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доклад о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3 мая 2025 г. в городе Кванджу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Долгий период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Центром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Институте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Квандж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 доклад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торика Юлии Дин, посвященный одной из малоизученных трагедий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Нежелатель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позиция Япо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по вопросу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редставила комплексный анали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фактически лишили тысяч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 словам Юлии Дин, трагед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а результатом сложного переплет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расчетов трех ключевых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а. Исследование раскрывает, как логика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превалировала над гуманитарны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Военн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США, контролировавшее послевоенную Японию и Южную Корею,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алось обсуждать проблему репатриации», — отметила историк. Причины такого решения носи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американские власти опасались кр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ССР и не желали брать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ю значите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Позиция Японии, как подчеркнула докладчик, выглядела особенно цинично. Страна, ответственная за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корейцев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до 1945 года, полностью устранилась от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озвращения этих людей дом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акже проявило поразительное равнодушие к судьбе быв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предприняв никаких усилий для выяснения их положения даже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с Японией договора об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вопросов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Юлия Ди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общая враждебность эт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стала глав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облем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фронтация времен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фактически заблокировала любые попытк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иалога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 заявила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оклад историк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ка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казались заложниками большой политики, став жертвами не только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о и последующего раздела мира на враждующие лагеря.

Представле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вносит важный вклад в понимание того,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могут определять судьбы цел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оставляя глубокий след в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бота Юлии Дин актуализирует вопросы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 за гуманитар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сво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в контексте глобаль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Конференция «Долгий период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собрала ве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истор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XX века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долгосроч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глобальног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аш корр.)

Фестиваль "Народы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Народы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гласно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10 г.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очень органично вплелись в историю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8 ма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и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Хлебом соль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ШИ «Этнос» встречали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ДНХ «Цветень» и ребята отделения КН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28-29 мая, педагоги и артисты ансамбля «Дурунанум», приехавшие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про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зволив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и. Ребятам помогли освоить и закрепить полученные навык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с масками), игра



на барабанах, игра на тхэпёнсо, народное пе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ДШИ «Этнос».

А 31 мая в 12.00 в парке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йон картодром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Дурунанум» (г.Чеджу,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учащихся МО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ДШИ «Этнос»,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кулинарный конкурс,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и товаров.

Фото: мастер-класс в «Этнос».
(Ли Е Си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Явка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составила 79,5%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явка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в рамках 21-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составила 79,5%.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сле ввода в действие системы голосования за рубежом в 2012 году. В списки избирателей были внесены 258.254 человека, и 205.268 из них пришли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работавшие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х РК.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с 20 по 25 мая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на 223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в 118 странах. Все бюллетени доставляются в Р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почтой. Они будут обработаны вместе с остальными бюллетеням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3 июня закроются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G7

Канада, которая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ует в этом году в «Большой семёрке» (G7), назвала РК в числе стран, лидеры которых могут быть приглашены на саммит организации. Он состоится с 15 по 17 июн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РК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сразу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он мож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программе самми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сессия с участием лидеров стран, не входящих в G7. Австралия, также упомянутая Канадой, уже получила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РК получит приглашени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 этом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оно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после выборов. Минист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едёт подготовку к возможному участ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аммите.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роходит Форум мира

С 28 по 30 ма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ференц-центре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проходит 20-й Форум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четырёх тысяч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60 стран мира, включая видных полит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Тема мероприятия - «Инновации дл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о углублё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мировых проблем от усиливающего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до содействия мир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ругими ключевыми темами являются усилия по борьбе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обостряющаяся гонка з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КНДР: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Золотой купол» - милитаризация космос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вергла критике проек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 созд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под названием «Золотой купол». Данный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ценарий ядерной войны в космосе». Он вызывает серьё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воей «агрессив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ью»,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Института СШ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7 ма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Несмотря на утверждения Вашингтона о сугубо оборонительном характере системы, она может быть легко пере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запуск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ракет. КНДР «решительно отвергает преступные замыслы США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осмоса в целях установления глоб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осуществлять своё суверенное право на защит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танция Туманган на границе КНДР и Росси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а

Завершилась реконструкц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анции Туманган на границе КНДР и России, - сообщило 29 ма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танция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ва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удобства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модернизац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истемы.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танция Туманган обустро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ей миссией погран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зла. Церемония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й станции состоялась 28 мая»,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танция Туманган – единственный пограничный переход между железными дорога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30 апреля нача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который соединит две страны.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выставка MADEX 2025

С 28 по 31 мая в Пусане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морско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MADEX-2025. Её организаторы -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и Ассоциация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Около двухсот компани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з 14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ли передовые системы кораб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й, морской обороны и морской разведки, а такж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спасения на море и экстренной эвакуации. Выставку посетят делегация военно-морских флотов 29 стран. Первая MADEX состоялась в 1998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выставки проводятся каждые два года.

Скандал века: Ближайшее окружение Юн Сок Ёля обвиняют в попытке госпереворота, и на кону уже не просто репутация политиков Дело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ерерастает в скандал века

Следствие по делу о попытке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в ночь на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крупней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скандал последних лет. На кону - не только политическая репутация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но и уголов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целого ряда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ключая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нистров, генералов и прокуроров.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хватывает несколько ветвей власти и перерастает в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ерку лояльности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й на самом верху.

Премьер и министры: "Ничего не знал, ничего не читал"

Пол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а, что ввела запрет на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для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Хан Док Су, экс-вице-премьера по экономике Чхве Сан Мока и экс-министр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Ли Сан Мина. Все трое в конце мая были вызваны на длительные допросы - до 10 часов каждый. Интересно, что первые двое исполнили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ле импичмента Юн Сок Ёлю.

Полиция подозревает, что эти чиновники могли быть осведомлены о планах экс-президента Юна по введению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сыграли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подготовке указа на закрытом заседании кабмина вечером 3 декабря. Следователи сверяют показания с видеозаписями из помещения, где проводилось заседание.

Сами фигуранты продолжаю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хотя их показания вызывают массу вопросов. Хан Док Су, в частности, заявил, что не знал о содержании документа до следующего дня, когда "как-то обнаружил его у себя в кармане пиджака". Чхве Сан Мок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олучил от кого-то свернутую бумажку", но был в стрессе и не стал ее читать. Ли Сан Мин вообще говорит, что "издалека видел листы бумаги с надписями вроде "отключить воду 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в Сеуле", но в суть не вникал. Следствие считает эти показания подозрительно согласованными и недостаточными убедительными.

Удаленные следы и "черные телефоны"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ниточек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 анализ секретных серверов сети зашифрованных служебных телефон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в службе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СОП). Полиция получила их записи и установила,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 действиях самого Юн Сок Ёля,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разведки Хон Чжан Вона, бывшего шефа полиции Сеула Ким Бон Сика была стерта удаленно после событий 3 декабря.

Следователи пока не установили, кто именно дал команду на удаление, но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за этим мог стоять лично Юн ил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по охране Ким Сон Хун.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м тре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 охранникам Юна - Паку Чон Чжуну (экс-главе

СОП), Киму Сон Хуну и И Кван У - продлили запрет на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Содержание же удаленных разговоров может стать важной уликой. Так, замдиректора разведки Хан в суде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что Юн надиктовывал ему список политиков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подлежащих аресту в ночь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Генерал под подозрением в измене

В параллельном деле агентство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передало в военную прокуратуру информацию против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он Чхон Х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разведки мин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Его подозревают в участии в закрытом совещании 2 декабря, где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ом и главой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Мун Сан Хо обсуждался план введ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ам Вон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просто присутствовал при обсуждении бюджета. Однако в его доме и офисе прошли обыски, и он был вызван на допрос.

Агентство передало дело в военную прокуратуру, приложив к нему 2500 страниц материалов, включая документы, полученные от полиции.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в передаче дела не звучит требование об инициировани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 возможном мятеж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это именно та статья,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применена.

Дела против прокуроров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фокусе оказались высш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куратуры, связанные как с самим Юн Сок Ёлем, так и с его супругой Ким Гон Хи, фигурирующей в деле о манипуляциях с акциями Deutsche Motors.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глава цент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ы Ли Чхан Су был обвинен 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служеб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 сначала экс-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затем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Его обвиняют в том, что он покрывал скандал с женой Юна.

Интересно, что после подачи жалоб Ли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Чо Сан Вон подали в отставку, но оппозиция требует не принимать их заявления, а продолжит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Что дальше

Полиция анализирует результаты допросов и готовит повторные вызовы фигурантов, включая возможные задержания. Следствие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ширяется: оно уже охватывает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его ближайшее окружение, министров, разведку, прокуратуру и охрану.

Эксперты же считают, что выяснение всех подробностей может занять время, но фигурантам дел грозят самые суровые обвинения, включая по статьям,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агают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высшей мер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Всемирный конгресс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 28 по 30 мая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Всемирный конгресс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2025». 106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65 стран мира обсуждают тему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будущего». В программе конгресса 36 сессий,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ется реагирование деятелей искусства на такие глоб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ка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на клима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Чон Бён Гу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ила культуры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РК. Конгресс впервые прошёл в Канаде в 2000 году.

В э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уют учёные, политик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 всего мира.

KBS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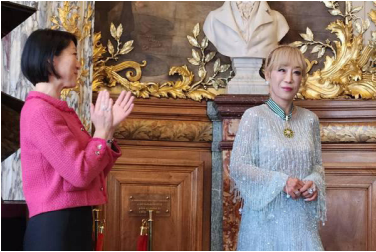
Сопрано Чо Су Ми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Франци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26 ма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ижском театре Опера-Комик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За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перная певица Чо Су Ми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степени Командора (Commandeur) из рук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Франции Флёр Пеллерин, имеющей корей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Флёр Пеллерен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а Чо Су Ми как «одну из величайших сопран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Данная награда присуждается лицам, проявившим выдающиеся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и внёсшим вклад в повы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татуса французской культуры.

Орден подразделяется на три категории: Кавалер, Офицер и Командор, причём последняя является высшей. До Чо Су Ми этой награды были удостоены д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в 2002 год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Ким Чжон Ок, а в 2011 году - дирижёр Чон Мён Хун.

KBS World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уборки свалок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нял вопрос ликвидаци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годня по нормативам уборка мусора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до 30 дн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правила и сократить эти сроки до недели.

С начала мая на островах начали поиск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роны помогают быстро обнаруживать скопления мусора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пустырей, частной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СНТ и вблизи рек. Всего в регионе предстоит обследовать около 500 квадратных километров территории.

– Работу проводим совместно с авиакомпанией «Аврора – БАС».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беспилотники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к поиску свалок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исследуем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наибольшая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Э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В этом году начали мониторинг немного позже из-за новых правил Миноборон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нтрольных изображений,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Саматов.

– Причины, почему вы вылетели поздно,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Если фотографии нельзя было обнародовать, то надо было вручную сообщать главам о свалках и передавать координаты. Поиск и уборку свалок нужно завершить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Я жду последнего дня месяца. После этого приму жесткие мер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территории уже обследовали. В восьм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мониторинг завершен. Всего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бнаружено 592 свалки, из них 58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уже ликвидировали. На уборку свалок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нормативам у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есть 30 дней.

– Я не согласен. Мы что, будем в этом мусоре жить весь июнь? Давайте установим меньший срок. Неделя максимум. До 7 июня необходимо убрать все свалки, которые обнаружены сейчас. Если есть большие скопления мусора, требующ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увеличим до двух недел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мы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а островах и убрали сотни больших свалок. Мы этот этап уже перешагнули, теперь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чистоту всегда,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м, уборка свалок также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пускает нов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Школа нян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работу второй пото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Школа нянь», реализуемой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Программ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нтенсивное обуч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месяца.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комплексные знания по современным методикам раннего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изучают санитарно-гигие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организации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осваивают приемы оказания первой помощи, а также знакомятся с лучшими практиками развивающих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методик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подчеркивает значимость проекта: «Школа нянь» – это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к подготовке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не просто обучение основам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а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реды,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в сфере воспит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программе уделяется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му подходу. Как отмечает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обучения Тамара Жукова: «Когда объявили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и открыли школу нянь, меня пригласили как эксперта. Я с радостью стал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слушательниц — программа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ая! Онлайн мы изучаем теорию, а на практике ездим в СахГУ.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 30-летним стажем, психологи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ссказывают столько полезного: как развивать ребенка с рождения, раскрывать его способности, правильно общать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ован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методическ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Центра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Выпускники программы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как в семьях, так и в учреждениях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задачам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региона.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Школа нянь» представля-

ет собой важный шаг в создании комплексной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способ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но и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ведет к укреплению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и улучшению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реализуем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улучшени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рожд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ом «Семья», который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родителей и детей,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программам, как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носит вклад в достиж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задач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реды для семей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сайте: <https://motherhood.mszapp.sakhalin.gov.ru/>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число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по разработке продуктовых программ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е сети современных кампусов»

26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по разработке продуктовых программ для будуще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Тех».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дн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вместно с индустриальными и науч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будут проектировать пул услуг, 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а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на базе кампуса. Экспертную оценку их наработкам да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первыми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 внедряют продуктов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кампусов еще до окончания и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манды, в число которых,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ходят Челябинская, Тюменская, Новосибирская область и Пермский край, определяют перспективные линей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науч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продуктов, формируют эффективные модели управления продуктов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Нарботки кампусов пройдут экспертизу Комиссии по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будут разработаны метод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которых создаются кампусы.

— Скорость создания кампу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Буквально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первого объект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И через год начн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На острове создается уник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обучения и проживания студентов. Особенно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глубокое погружение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и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оздание кампуса. Регионом как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заказчиком уже определены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обраны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тнеры и оказыв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поддержка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азработк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дуктов и открытии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сопров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Наталья Гвоздева.

Приоритетными для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станут три направления: технологии освоения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выращивания и переработки акваресурсов, технологии для энергетики и беспилотные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и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дет создание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Его задача – под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и обеспечи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наше сильно звено – эт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Университет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х результатами с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бизнес-партнеры для решения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адач.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х решений уже ждут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ализующие шельфовые проект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Актуальна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беспилот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дронопорт, вокруг которого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эконополис,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ая перед участниками сесс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дронопорт «Пушистый»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ре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ых выступает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1-2 августа состо-

ится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блеме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ведь регион первым в стране апробирует механизм квотирования парниковых выбросов. 6-8 сентября здесь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стров становится местом ежегодных сборов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актик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Также 25-26 сентября дронопорт примет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СахалинТех» входит в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Создание сети современных кампусов», которые возводятся в Росс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 2030 году в стране должно появиться созвездие из 25 кампусов. Работу по д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ед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уже полностью построен кампус в Москве на базе МГТУ им. Н.Э. Баумана, еще 24 студгородка проектируются и строятся. К 2030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кампусов в стране увеличится до 25, а к 2036 году — до 40.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явились у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СВО получают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ую помощь на всех этапах. Профи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уже приняло около 1300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птимальна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медицинск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ыло открыто стационар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2-го этапа реабилитации, где под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наблюдением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 60 человек.

Один из пациентов нового лечебного корпуса – житель Хабаровска Виталий Ким. Мужчина отправился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добровольцем. Контракт был заключен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Ф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осколочно-минометного ранения в сентябре 2024 года получал лечение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где было произведено удаление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осколка.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лечение в амбулаторном этапе облегчения не приносило,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 замены тазобедренного сустава. Сейчас мужчина находится под патронаж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эффект от ежедневных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же заметен.

—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нения разорвало правый тазобедренный сустав, в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его заменили на протез. За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более стало заметно меньше, хожу увереннее. Медперсонал здес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благодаря и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текает быстро, – поделился Виталий Ким.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тактик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лечебном корпусе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й команд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пациента специалисты оценивают его состояние, возможный потенциал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зрабатывают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неё входят занятия на специальных тренажерах, массаж,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я и другие процедуры. Помогают пациентам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около 85 сотрудников стационар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 профильные отделения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стационара попадают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и СВО, но и островные пациенты, пережившие тяжелые состояния.

— До появления нового лечебного корпуса, где проводится 2-й этап реабилитации, мы могли осуществлять реабилитацию в амбулаторных условиях только пациентам с остаточными явлениями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пособных себя обслужи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е имеющих показаний для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и проведения лече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пациенты приезжали к нам, проходили назначенны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возвращались домой. Новый стационар подарил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даже в острый период заболевания, в ранний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ых травм и операт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инсультов и инфарк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включился в комплекс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бойцов с начала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прощен порядок прохожд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в учреждени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полнен парк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Раз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1대 대선 재외선거 잠정투표율 79.5%…역대 최고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중 25만 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 902명, 아프리카 2천473명이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다.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20~25일 치러졌다.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동포청, 202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 인천에 대회 깃발 전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5월 22일(목)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부영타워 30층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내년 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대회 상징인 ‘한상기’(韓商旗)를 전달했다.

이 대회 운영위원회는 4월 17일 미국 애크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2026년도 대회 개최지를 인천광역시로 의결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가한 이상덕 청장과 유정복

시장은 2026년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인천 유치를 축하하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도 다졌다.

또 한상기 전달을 계기로 두 기관이 향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서포터즈 '동포유' 출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서포터즈 ‘동포유’가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포터즈 명칭 ‘동포유’는 전 세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포유’서포터즈는 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만든 영상,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1기 서포터즈로 국내 12명 및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에 체류 중인 청년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해 위촉했다. 이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SNS 채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 관련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발대식에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감각, 열정, 그리고 시선으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포청은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인천서 막을라, 26개국 60여명 참가

재외동포청,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목표로

올해 27번째 개최이상덕 청장,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끌어갈 주역”



올해 27회를 맞는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7일 오후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주최로, 오는 31일까지 ‘연결된 세계속 한인, 더 큰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동 행사는 1998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시행해오던 행사이며, 청 설립 이후로 3번째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등 26개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 62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은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이상덕 청장의 개회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의 환영사,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국민의힘)와 이기헌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더불어민주당) 및 조영희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의 축사, 참가자 대표(아르헨티나의 송 솔카롤라)의 답사, 기념촬영 및 환영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청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작년 7월말 동포청장에 취임한 저는 외교관 출신으로 1980년대, 1990년대 해외에 다니면서 동포사회를 접했다. 선배들은 초기에 여러

움을 딛고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여러분처럼 훌륭한 후배들을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방인이 아니며 현지에서도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러분은 고국에도 기여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포청은 이러한 활동을 진심으로 도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국땅을 처음 밟은 의사인 송 솔카롤라는 “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라며 “각 분야에서 성장해 미래의 리더가 될 우리는 이번 대회 기간에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대회 이틀째인 28일 이상덕 청장의 특강을 듣고, ‘재외동포청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지며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의 만남 등을 이어갔다.

또 29일과 30일에는 ▲차세대동포의 역할 ▲차세대동포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의 주제를 놓고, 서로 토의를 진행한다.

31일에는 부대행사로써 세계 각 지역의 차세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

(재외동포청 제공)

Тр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изнес-форума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в 2025 году

На совете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нял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 крупным делов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В августе и сентябре Сахалин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передовых решений в сферах энергетик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начале заседания губернатор поздравил островное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с Дн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26 мая.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делового климата.

– Бизнес создае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это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овместно мы достигли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За прошлый год установили рекорд – 355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большинство их них – в несырьевом сектор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Впереди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и мы выглядим очень уверенно в этом рейтинге. Хочу выразить надежду, что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мы удержим позиции. Потому что бизнес и власть на Сахалине работают вместе.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прислушиваемся к тем проблемам, которые озвучива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и прилагаем все усилия для их реш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крупная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ая площа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ервого в стране официального дронопорта «Пушистый». В августе и сентябре на это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я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еловые форумы,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конгрессом.

– Откроет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форум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1-2 августа. Сахалин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 это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в сфере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6-8 сентября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Мы сейчас в Китае на всемирном форуме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рассказываем о сахалинском проекте. Наши партнеры выражают жела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и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осени всегда становится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В этом году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намечены на 25-26 сентября. Важно, что все эти форумы являются выезд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одного из главных дел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тран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зидента. Уверен,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форумов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 счит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Росконгресса Игорь Павлов.

К участию в круп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глашены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й 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из десятков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стран АТР и БРИКС.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работе форумов присоединятся более 3 тысяч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и и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набирают обороты морские беспилотник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работывали сценарии по гражданскому беспилотию в небе. В этом – планируем отработать сценарии и на море.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могут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доставки грузов,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акватории,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на шельф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 ходе инвестсовета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9-10 июн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стретит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бизнес-форум. Иностранные партнеры посетят технопарки и ключе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ятся с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ми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ми проектами.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и власти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я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ах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уриз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дицины, торговли и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Еще одним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праздничного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о награжд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вручил трем компаниям м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III и IV степени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СВО.

За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1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град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губернатора. Среди них –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Аудиторская служба» Татьяна Муськина.

– Мы помогаем бизнесу устранять нарушения в вопросах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 выполн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роводим консультации, чтоб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успешно проходили все проверки. Мы просто делаем свою работу и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ее оценил губернатор. Считают, что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е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налажена великолепно,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Награды также получили 13 предприятий – лидеров ежегодного отбора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госпрограм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беды учитывались объем налоговых отчислений и количество созд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конкурса «Актёрская шапка» Дарья Бычков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подчеркнула, как важно быть собой и не бояться этого.

«Когда мне разрешили выступить, я думала только о том, что я стою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на Таганке. О том, что здесь играли великие люди и все мы имеем возможность ходить по этому деревянному полу. Я плакала от радости и боли. От того, как удивительно люблю Михалкова (до дрожи), от того как люблю живой, настоящий театр, — рассказала Дарья. — Я прошла через многое (как и все мы), ночевала на улицах, зарабатывала деньги на Арбате, недоедала, копила деньги на билет до Москвы; работала на 3-х работах (и до сих пор так)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площать в жизнь свои же мечты. Можно тысячу раз пытаться подстроиться под рамки общепринятых стандартов, но тогда что останется от тебя? От меня останутся только воспоминания. Так пусть они будут такими, чтоб дух захватывало.

Отметим, Дарье Бычковой 24 года. В 2023 году она окончила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 данным «Кино-Театр.Ру», девушка успела сыграть в четырех фильмах: «Поворот к счастью» (16+), «Пять минут тишины. Море и горы» (12+), «Своя чужая дочь» (16+), «Стой! Не то мама будет гадать» (16+).

«Актёрская шапка»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актеров в формате открытого кастинга, зародившее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онкурс помогает как опытным артистам, так и выпускникам и студентам театральных вузов заявить о себ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шанс быть замеченными режиссерами и агентами, что может стать важным шагом в их карьере.

сахалин 휴양소 휴양객의 수로 극동지역들에서 상위 5위에 들어

러시아 연방 러시아의 휴양소 예약사이트가 2024년 휴가를 위한 휴양-요양소를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들의 순위를 집계했다. сахалин주는 극동지역들 중 요양할 수 있는 휴가지로서 상위 5위에 들었다. 이 평가는 휴양소 휴양객의 수를

기반으로 집계되었다.

원래 휴양소의 수용 인원은 774명인데 2024년에 сахалин주 휴양소를 찾는 휴양객은 3만6천500명에 달했다. 따라서 сахалин주는 극동 연방관구 휴양소들 중 인기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선두를 차지한 지역들은 연해주, 부랴치야, 자바이칼, 아무르주이다. 국립 휴양협회 이사회 회원인 예브게니야 테렌티예브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휴양소를 방문한 사람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백7만6천 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пятерку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числу отдыхающих в санаториях

Портал бронирования Санатории-России.рф составил рейтинг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регионов для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отдыха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5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анаторного отпус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основу списка легли данные о числе посетителей санаториев.

В 2024 году сана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и 36,5 тысячи отдыхающи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санаториях региона составило 774.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реди санатори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число лидеров также вошли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е и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По словам члена 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рортной ассоциации Евгения Терентье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санаториев выросло на 3,2%, достигнув 7 миллионов 276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의 소녀, 모스크바 애국축제에서 우승컵 차지

5월 18일(일) 모스크바 승리 공원에서 열린 <러시아의 마음> 축제-경연대회 결승전이 열린 가운데 우즈베크와 전국 각지에서 온 예술인들이 최우수상을 두고 결전을 벌였다. 그중에 포로나이스크 지역에서 온 сахалин의 소녀 리아나 옐리세예와가 출전해 2차 준결승전을 통과했다고 сахалин과 쿠릴열도 소식지 'сахалин 온라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리아나는 에르자인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우리에게 손님이 왔다'는 노래로 심사위원단을 매료시켜 7세 이하 <보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우승컵과 상장, 상품, '최연소 참가자'에게 주는 특별 상장을 받았다.

재능있는 어린 가수 리아나는 와흐루세브 마을의 '샤흐초르(탄부)' 문화회관의 '노와야 율나(새로운 물결)'그룹에서 마리나 쉬멜료와 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하고 있다. 리아나의 엄마 나탈리아에게는 교사를 위한 지도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막심 예술학교'와 승리 박물관이 조직한 이번 애국축제는 애국심과 국민적 책임을 함양시키고, 재능을 발굴하며,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 기획은 모스크바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Юная сахалинка завоевала победный Кубок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в Москве

В воскресенье, 18 мая, в московском Парке Победы прошел финал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Душа России». В борьбу за звание лучших вступили артист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и Узбекистана. Среди них была юная сахалинка Лияна Елисеева из Поронайска. Она прошла во второй этап заочного отбо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Sakh.online — нов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Девочка в сценическом эрзянском костюме очаровала жюри песней «К нам гости пришли». В номинации «Вокал» для детей до 7 лет она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Лияну наградили кубком, дипломом, призами и специальным дипломом «Самой юной участнице».

Юная талантливая певица Лияна занимается в группе «Новая Волна» Дома культуры «Шахтер» в Вахрушев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арины Шмелевой. За ее успехи маме Наталье вр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я.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Школой искусств МакСим» и Музеем Победы, призван воспитывать патриотизм и гражданск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ыявлять таланты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нтерес детей к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Проект реализую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